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림움 -

(나)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 긴 우리 발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발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탕자 울타리가 처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뽕뽕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덕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발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넷가에 소고삐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샤르르 샤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짓는 소리 같기도 하  
여

고개를 들면 아, ㉢청청히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섬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  
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덕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발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뜩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군.
- ② ㉡을 활용하여 넷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 ③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을 활용하여 무섬증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 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 ① (가)는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나)는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인다.
- ③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준다.
- ④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고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한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을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짹짹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호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튀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